

순천시장 부속실 여직원 '파격인사' 논란

'무기 계약직'서 '별정 8급'으로 고공 승진 시 공무원 "사기저하·공직생활 회의" 한숨

市 "적법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외교통상 부장관 자녀 특채로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남 순천시장 부속실 여직원 백모씨가 '무기 계약직'에서 '별정 8급'으로 파격 승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순천시공무원과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민선4기 노관규 시장 취임과 함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백씨가 시장부속실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가운데, 노 시장 재임기간

인 지난 4년여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1월 인사에서 '별정 8급'이라는 파격적인 수직승진과 함께 근무처도 모든 공무원들의 최고 희망부서 중 한 부서인 총무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해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 결과에 크게 실망한 가운데 사기저하로 인한 행정력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여성공무원들은 줄서기로 인한 인사 차별에 대한 결과에 대해

공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들이, 그것도 여성공무원들이 입사해 '별정8급'이라는 직급을 받기위해서는 평균 10년 전·후의 성실한 근무기간을 거쳐야 이룰수 있는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4년 정도밖에 되지않은 직원을 시장과 가깝고 부속실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파격적인 승진인사를 발령한 현 노 시장에게 대해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다.

순천/양광릴 기자 yhy@namdnews.com

한 절차에 의해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53·순천시 조례동)씨는 "인사는 만사이다"고 한 말의 뜻을 훌륭하신 노관규 시장께서 모를리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무슨 관계이기에 보란듯이 이와 같은 특혜성 의혹을 갖게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신 대통령께서도 공정한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공정한 인사는 사회기준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신 점을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 뜨리는 특징인에 대한 인 사특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노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남개발공사는 9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첫 삽

214만㎡ 면적...1단계 사업비 3천200억 투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착공된다.

전남개발공사는 9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경도 현지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과 관련된 지난 2007년 전남도, 여수시, 전남개발공사간 투자협약 체결이후 3년만에 첫삽을 뜨게 됐다.

여수 국동항에서 배로 5분 거

리에 위치한 섬인 경도를 개발 사업은 총 214만㎡의 면적에 1단계로 사업비 3천20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까지 숙박시설, 쉼터, 편의점, 카페, 상점, 해안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 여수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엑스포 이후에도 전남 동부권 및 남해안의 대표적 관광단지 운영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12 여수세계

박람회 기간동안 여수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에 한 몫 할 것"이라며 "엑스포 이후에도 전남 동부권 및 남해안의 대표적 관광단지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용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 사업단장은 "세계박람회 숙박시설을 지원하고 전남도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명품관광단지가 조성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백종화 기자 choong@namdnews.com

전남도 '농산어촌개발' 국비 전국 최다

내년 광양시 국사봉권역 등 신규 50건...1천710억 확보

전남도는 내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광양시 국사봉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50개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향후 3~5년간 1천710억원의 국비를 확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 4개 유형으로 시행하는 것

이다.

전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도 광복회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57개 사업을 신청한 결과 50개 사업이 신규로 확정됐다.

신규 확정된 주요 사업은 광양시 국사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1년 처음 시행하는 창조지역 사업인 순천시의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과 문화로 바꾸는 경관농업' 2개 사업, '지

리산권 에코빌리지'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남도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신규사업 1천 710억원 규모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3개 권역 360억원과 신규마을 및 재개발 사업 19개 지구 393억원에다 계속사업까지 포함해 총 1천967억원 규모다.

이는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패격하고 농촌다운'을 지닌 미래형 농촌생활 공간 조

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전남이 올해 12개 권역, 내년 15개 권역으로 2년 연속 전국 최다 권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그동안 열악했던 도내 농촌지역의 정주 및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일반농산어촌사업의 더 많은 국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효과가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역점시책인 행복마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민 기자 ocn@namdnews.com



강진의료원 첫 백내장 수술 시행

안과 개설후 2명...대학병원 수준 서비스

전남 강진의료원이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협조를 받아 안과 개설 이후 첫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는 등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자리를 되찾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전남대병원 의료진을 파견받아 안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안과 개설 이후 처음으로 백내장 수술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백내장 수술은 강진군 강진읍에 사는 윤모(79·여)씨 등 2명으로 윤정철 전대병원 안과과장이 강진의료원을 직

접 방문, 수술을 했으며 수술 결과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의료원은 앞으로 백내장 뿐만 아니라 녹내장, 망막질환 등에 대해서도 전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을 초빙, 대학병원에 서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수준높은 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news.com
강진/이병석 기자 lls@namdnews.com

담양군, 담양 10亭子 선정 추진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지역별 특성 고려

담양군은 '누정의 고장', '원림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담양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대표 정자 10개소를 선정한다.

담양군이 '담양 10亭' 선정 계획에 이어 '성산별곡'과 '사미인곡' 등 우리 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가사문학의 산실이었던 정자들을 대상으로 '담양 10정자(亭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성지(秋成誌)와 조선환여승람(朝鮮還興勝覽) 등 여러 문헌에 따르면 담양에는 70여개의 정자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붕괴되고 없어져 현재는 29개의 정자가 현존한다.

군은 1945년 이전 건립돼 현존하

는 29개소를 대상으로 정자 자체의 역사성과 함께 주변 경관까지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정자 15개소를 1차 선정하고 이들 정자를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학적 가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0개 정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담양 관내에는 소쇄원과 식영정, 송강정, 변양정 등 9개소가 문화재로, 남극루와 문일정 등 4개소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담양/이정신 기자 lgs@namdnews.com

순천대 박물관, 체험학습실 개장

초등학생·가족 대상 문화공간 제공

순천대 박물관이 체험학습실을 개장하고 시민들에게 더 친숙하고 즐거움이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일 순천대 박물관에 따르면 체험학습실에서는 박물관의 특징을 살린 네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흐릿해진 유물 위의 글씨와 무늬

를 종이에 찍어내는 탁본체험, 역사적 가치가 깊은 박물관 소장 유물사 진으로 만든 퍼즐 맞추기, 박물관 소장 유물 밑그림에 색칠하고 문양 그리기, 부채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으며, 초등학생과 학생을 살린 네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순천/양광릴 기자 yhy@namdnews.com

고흥 '씨월드 리조트' 조성 탄력

美 모아랜드사 초청, 미국방문 투자설명회 캘리포니아 주지사 내년 1월께 고흥 방문



고흥군이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리조트 조성사업이 민간 비즈니스 차원을 뛰어넘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박병중 군수는 미국 모아랜드사(회장 테리 모어랜드)의 초청으로 지난달 29

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 캘리포니아를 방문, 세크라멘토에서 투자설명회와 주지사 면담, 주정사 및 의회 방문 등을 방문했다.

박 군수는 이번 방문 중 아놀드 슈왈제너거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고흥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고흥의 리조트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영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 교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놀드 슈왈제너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며 퇴임 직후인 내년 1월에 고흥을 방문할 것을 희망했으며 "고흥군이 세계적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슈왈제너거 주지사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트레이드 미션' 행사에 한국을 방문, 고흥의 리조트 조성사업을 포함해 고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류사업에 대한 상호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 군수의 방문은 세계적 경제위기속에 위축돼 가는 국·내외 투자심리를 선도적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동시에 고흥군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다양한 교류와 지원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흥/정만우 기자 jmw@namdnews.com

지역단신

영광군,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영광군은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안은 26일까지 주민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10월중 시행하게 된다.

다만, 연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및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 면제에서 제외된다.

영광/박상훈 기자 shp@namdnews.com

해남군, 읍·면 순회 법률서비스 호응

해남군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평소 법률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1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한차례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에는 7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속에 각종 법률 고충상담이 진행됐다.

또 법률상담 서비스 현장에서 관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개명허가 신청도 접수받아 한글 개명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관내 11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새롭게 한글 이름을 갖기도 했다.

해남/김연 기자 hyeon@namdnews.com

강진군도서관, 전통 한지공예교실 운영

강진군 도서관은 지난 7일 관내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전통 한지공예교실 고급반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운영하며, 상반기 한지공예교실 초급반에 이어 하반기 고급반을 개설해 전통문화계승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화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총 15회에 걸쳐 좌탁, 고비등, 앉은경대 등을 배우 오는 12월에는 수강생들의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종연 강진군도서관장은 "이번 한지공예교실을 통해 관내 주민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석 기자 lls@namdnews.com

고흥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고흥군의회가 최근 2011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원 협의회를 열고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의원들은 내년도 의정비 조정에 대해 토의한 결과, 올해 지급받고 있는 의정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의원 협의회에서는 의원 모두가 열악한 지방재정 현황을 감안한 예산절감에 의원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을 군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고흥군의회는 2009년부터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게 됐다.

고흥/정만우 기자 jmw@namdnews.com